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만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삼의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392호
서기 2002년 10월 23일 수요일 25

법공양 페이지

마음의 발전 있어야 삶도 발전

아침저녁 자고 깨는 것도 실감나지만 우리가 흠어들었다 모이는 것도 실감이 나죠. 허허! 이렇게 흠어들었다가 모이는 것도 일종의, 우주 자체도 그렇게 흠어들었다가 모이고 모여졌다 흠어지는 작용을 쉼 사이 없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자기 죽을 날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죽는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면서도 죽을 날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요새 내 상당히 그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억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창살이 없으면서도 창살 속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억압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나 하고 말입니다. 똑똑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천차만별의 사생(四生)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과 행동하는 것과 그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모든 천차만별의 사생들은 자기가 살아온 습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이기지 못할까요?

표현을 한번 한 가지로 해봅시다. 언어가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떠나서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자기 모습을 형성해 놓고 자기의 모습은 없어지는 그러한 생을 쉼 사이 없이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사람이 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들이 사는 그 가운데에 바로 나도 더불어 함께 한마음으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나를 형성시킨 놈이 어떤 놈인가? 내가 나를 형성시켜서 지금 끌고 다니는데, 물론 혼자는 할 수 없어서 부모를 등장시켜서 정자 난자를 받고 몸을 빌어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벌레가 나무를 의지해서 자기 몸을 비틀어 매서 진화를 시키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대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다 해드리는 말이 공생(共生)·공심(同心)·공용(公用)·공체(供體)·공식화(供食化)하고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면 데로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어디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겠다,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주 어긋나는 일이지요.

어떤 제자가 스승님께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가 너무 시끄럽고 분주하고 대중들이 많아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을 짓고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가 그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는 지금 곧바로 가되 땅을 밟지 말고, 남이 짜준 옷도 입지 말고, 남이 놓아준 밥도 먹지도 말고, 남이 떠다 놓은 물도 마시지

고 합니다.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뜻을 일러주시고 지금까지도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수많은 사람이 그 도리를 깨달았다 해서 각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야 해요. 마음은 제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고, 그 여러 부처님의 마음이 마음을 통해서 바닷물 내놓듯이 다 내놔도 줄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그 관습에 매달리고 그 습에 매

보면 어떡하면, 어떡하면 요것을 요리를 잘 해서 맛있게 먹어서 그 요리 맛을 알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땀이 부쩍부쩍 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구에 붙어서 사는 우리 사람 벌레가, 우리는 화(化)해서 한 발을 떼어 놓아야 만이 우리는 공기 주머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자유자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의, 즉 평등(平等)의 같은 자리를 할 수 있어서 여러 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벗었다고 해서, 이 생애 살면서 있었던 웃을 벗었다고 해서 죽

지만별의 모습들을 죄들 각각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습, 그 습으로 인해서 오는 인연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업이 되는 거죠. 그게 업이 되느냐 선업이 되느냐, 또 사랑도 하다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헤어지면 악업이 되죠. 선업이 그냥 악업으로 순간에 변해 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악업 선업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아, 여러분 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갖은 각색의 모습을 해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거는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업식이 굴레에서 그냥 고대로, 컴퓨터에 넣으면 고대로 나오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고대로, 딱 아주 기정 사실로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내가 말해드리는 건, 그렇게 뻔해야 할 수 없고, 끼울래야 끼울 수 없이 입력이 돼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계성 세균성 윤회성 업보성 인과성 모두가 거기에 속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 몸 안에 들어있어요. 누구도 부인 못 할 겁니다. 아, 그래서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고 나

공덕이란 말은 뭘 뜻하느냐 하면, 전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를 하나로 묶어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같이 살고 말과 마음이 이어지고 돌아가는 것을 바로 여래라고 하죠. 그리고 공덕이라고 하고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나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생기면 모두 거기에 관여가 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모여야 그 일이 성립이 되죠. 전부 모이지 않고는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모여서 공동 분담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공(空)해서 전체가 다 이어져서 돌아가니까, 내 주인을 먼저로 치고 그 내 마음 주인으로 하여금 모두 보퉁어쳐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몸 속의 모든 중생들이 의식들을 꼭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를 시키려면 내 마음의 선장이 그 자생중생들을 다, 내 몸이 배라면 다 태워 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배에 탄 중생들은 다 그 선장의 말을 듣게끔 돼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질서 있게 그 행동을 마음의 선장에 의해서 따르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어휴! 저놈은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안에서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쪽으로 음파가 그냥 바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에서도 윤회성 업보성 인과성 모두가 거기에 속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 몸 안에 들어있어요. 누구도 부인 못 할 겁니다. 아, 그래서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고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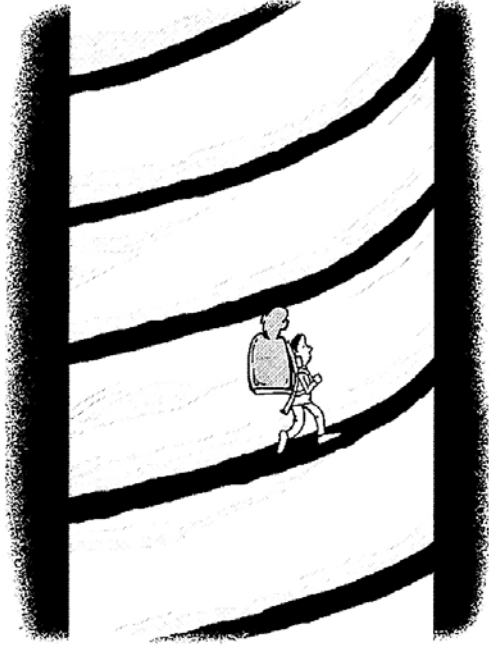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입력이 된 데다가 되입력하면 앞서 입력한 것은 없어지는 것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길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모습들로 하여금 먹고 먹고 이러면서 살아온 그 습의 결과입니다. 그 습이 쉼 사이 없이 반복되는 반면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하면서, 하여튼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한 번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대로만 따라갈까요?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우리 마음은 발전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도 발전이 되고, 또는 발전이 되는 반면에 우리는 창조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면 그때는 물리가 터지고, 물리가 터지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주 천지를 훑듯하다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넓게 본다면, 어떻게 넓게 봐야 하나? 첫째, 우리가 공기 주머니 안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실만 해도 그것은 아주 똑똑한 생각에 속하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던데도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마음은 제가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한참만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삼천 년 전을 지금 현재에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뜻을 박아서 미래의 어느 때에 갖다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멀고 가까움이 없이 또 가고 올이 없이 자유롭게 가고 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힘이 어디서 생기냐는 거죠. 마음이 폭넓어지고, 폭넓은 무리

말고, 남의 땅에다가 오줌도 누지 말라. 그리고 남이 농사짓고 나서 나온 걸로 지분을 만든 건데 그 지분 밑에서 어떻게 자느냐? 남들이 다 해놓은 데서 너도 더불어 같이 살면서, 더불어 같이 사는 너의 모습과 너의 생명과 너의 아픔을 다 버리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 이게 모두가 한도량아구나!' 하는 그 뜻을 그때서야 알고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이 공부 했더라고요.

그런 도리를 우리가 꼬집어서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말로 해서 마음이 승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 꼬집어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비밀문서라는 것이 전부 정신세계의 비밀이니까요. 우리가 가고 오는 것도,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오는 것도 비밀이예요. 예전에는 모습을 가지고 축지법을 썼지만 지금 시대에는 정신계의 축지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신을 먹고살고, 정신을 뺏기느냐, 정신을 잡아먹느냐 하는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순히 사는 것 같지만 전체가 전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 싸움을 안 하고 어떻게 평등하게 공법으로써 대치를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상 아님이 없는데 어째서 모든 것을 밟아서 먹고 살아야만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그래서 부처님, 삼천 년 전이라

이론으로만 알려고 하면 아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

달려서, 인연들에 매달려서 쫓아볼 수 없고 그냥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부모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의 몸을 붙잡고, 남편이나 아내의 몸을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다 아나게 놓고 슬기롭게 굴러다니면, 몸은 저절로 붙들여지고, 사랑은 저절로 화(化)해서 자비가 되고 자비의 정이 되고, 팔래야 뭘 수 없이 이어져 가는 그런, 더불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여러분한테 주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는 게 아닙니다. 웃을 벗으면 자기가 살던 차원대로 참 TV를 보니까요, 배를 갖다가 놓고, 같은 배인데도 크고 작은 것을 가리려고 갖다 놓고선 굴러 떨어뜨립니다. 적은 것은 적은 대로 굴러 떨어지고 큰 것은 큰 것대로 굴러 떨어지게 해요. 그러니 같은 배건만 크고 작은 걸 가려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놓고, 큰 것은 큰 것대로 놓고 팔고, 중간치는 중간치대로 놓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습이 다른, 그 자체 천

죽었다 살았다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

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나로부터 업식이 생긴 거니까 모든 것을 전부 내 뜻으로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묘한 것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살면서 그 인과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업보성 또는 영계성까지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죠. 인과가 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이 말입니다. 입력이 돼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이 녹음이 돼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 입력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입력된 것을 어떡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입력이 된 데다가 되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한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인식이 되고 등감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말려서 그대로 습성으로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모두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믿고 되놓아라, 제 나무는 제 나무 뿌리를 믿어야 되느냐, 고 했습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수분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서 올려보낼 수 있어서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남의 나무의 뿌리를 믿고, 아이고! 좋게 살게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그건 기복이며 이익이 하나도 가지 않는 것이며, 공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냐 아주 평화스럽고 좋게 해결사로서 조절을 하느냐에 달린 것도 바로 자기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런 기정 사실입니다.

그 쉼 수 없고 해야 할 수 없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천차만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업 선업의 천차만별의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나오는 데로 말과 놓으면은 다 통신이 돼서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주 바깥으로 꼬달리고 자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요런 자세한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마음을 넓게 가지면서 거기다가, 만약에 꿈을 꾸었다든가 상대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잘못되는 일이 돌아올 기미가 보인다든가, 또 나를 그냥 꼭두각시로 만든다든가, 또는 나를 적대시 한다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허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들 벌써 내가 그 기미를 알게 되면은,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가 있잖아! 그 마음과 같이 아니게 내 마음으로 쓸 수 있게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모든 신호를 거기다 맡겨놓을 때에, 이런 의화적이기도 해요. 맡겨놓을 때에 대뇌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에 소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결정을 짓게 되면 허달이 되는 거죠. 사대(四)차로 통신이 되고요. 통신이 돼서 제각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그때는 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예요. 안과 밖으로 다

26면으로 계속

가짜로 인위를 남용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인 288쪽
값 6,000원
에시아운